

대학시설관리자! 교육환경 인프라와 저탄소 녹색성장, 그 미래가치를 창조한다

이영휘 | 강남대학교 시설관리처 팀장

얼마 전 전국대학교시설관리자협의회 (이하 '전시협'이라 한다) 제1지구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뭐라 할 수 없는 감회에 잠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본다.

그러고 보니, 2002년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몇 개 대학의 뜻있는 시설관리팀장들이 모여 시설관리자협의회 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러 차례 만남 것이 계기가 되어 2003년 5월에 창립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제1회 총회 및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

로 지난 2012년 10월까지 10회의 총회 및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 전시협의 역사가 벌써 10여년이 지나 이제 명실공히 대학 시설관리자들의 정보 교류 및 만남의 장으로 그 자리를 견고히 했다.

대학시설관리자의 임무

전국 4년제 대학 200여 개, 그곳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자만도 1,000여 명으로 대학 내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건

물신축, 재축과 제 시설관리에 책무가 있으며, 토목·조경·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환경·안전 등으로 구분되어 그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보다 발전적인 대학 교육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대학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구성원들이다.

대학 내에는 영역별 협의체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보직 개념의 자리로 교내 잦은 인사이동이 그 위치를 달리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자들은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설관련 분야도 다양하지만 채용 시 기본적으로 그 분야를 전공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실무에 바로 투입한다. 대부분이 입사 후 퇴직까지 한 업무에만 종사하는 관계로 무엇보다 전문성이 유지되고,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시설 현황에 밝게 되어 긴급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자기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 계통에서 도태되고 그 업무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 교육시설 인프라

의 원활한 관리운영 없이는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근본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정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뒤따르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과연 그 대학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대학시설이 곧 경쟁력이다

교육환경개선 및 실험·실습장비 확충에 대비한 교육시설의 기본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설비 계획과 투자로, 어떤 경우에도 여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는 시설관리개념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강의를 통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교육환경의 다변화를 통해 교육의 현실적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고, 산·학·연이란 공동체 구성으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 졸업과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인력 배출을 기하고자 노력하며, 이는 중복 교육에서 요구되는 경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생산적인 국가 경제와 산업동력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교단을 중심으로 한 이론에서 탈피해 산업현장의 실무를 대학 내로 들여와 교수·학생, 그리고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도출

함에 있어 거기에 걸맞는 시설 투자와 이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는 이제 대학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 하겠다.

바로 이곳에 시설관리자가 자리한다

연간 대학 운영비의 20~30%가 건물 신축 및 유지·보수 관리에 쓰이고 있고, 전기·수도와 난방을 위한 유류·가스의 사용량은 거대한 공장에 맞먹는 규모로 수십억 원이 소요되고 있어 이의 효율적인 관리 또한 우리 시설관리자가 해야 할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저비용 고효율에 기여하는 시설관리를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 접근과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에 부족함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신제품이 출시되는 시장에서 각종 자료 수집과 정보를 얻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술인의 자세이며 사명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 처리의 사무자동화와 대학 내 산재된 건물간의 업무공조, 종합상황실로 결집되는 각종 정보는 미래 시설관리에 대한 밑그림이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인력 및 시설 운영에 있어 기초 자료이다. 나아가 관리인력 감축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를 기할 수 있으며, 집결된 정

보를 바탕으로 가깝게는 내년, 멀게는 10년 이후까지의 학교관리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 예산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시설관리자의 몫이라 하겠다.

좋은 '예'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강남대학교는 필자를 위시한 소속 시설관리자의 건의로 70여억 원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전국대학교 최초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교내 모든 전기·기계 설비의 원격제어 및 운전상태 모니터링에 의한 관리의 효율화, 재실감지 및 건물 실 출입통제를 통한 절전 및 방범, 중수 및 절수 시스템 활용, 공기 및 지중 열을 이용한 열원 대체, 방재시스템 통합 등을 이루었고, 그 결과 기존 시설관리인력의 20% 감축과 연간 10여억 원의 에너지 예산절감, 운영경비를 절감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캠퍼스 2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는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2011·2012년 환경부로부터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지정받았고, 에너지관리공단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관련 민·관의 관심은 물론이며, '전시협' 세미나에 모범이 되는 대학사례로 단계별 진행과정이 소개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고,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 차 방문하고 있다.

대부분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력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제반 에너지를 아끼고 적절하게 잘 이용·관리하는 것은 예산절감뿐 아니라 CO₂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제2, 제3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지구 온난화 예방 및 환경 개선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정신이다.

이제 대학은 역사적인 인식 속에서 단순히 교육기관으로만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에 사회 국가적인 소명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집단이기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하는 시대를 우리 시설관리자들과 열어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전시협'이 또한 함께 할 것이다.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 협의회!

우리 '전시협'은 전국에 산재된 대학 내 시설관리부서원의 결성체로 지역 특수성과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강원권을 중심으로 한 '제1지구', 경기·인천권의 '제2지구', 충청남북도의 '제3지구', 대구·경북의 '제4지구', 부산·경남의 '제5지구',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가 함께하는 '제6지구'로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정기적인 모임과 세미나 등 지구단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 시설관리자가 모두 참

가하는 정기총회 및 세미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관리 형태와 서로 다른 환경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시설관리과정에서 얻어진 실질적인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새롭게 접하는 신기술과 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학 내 전문가인이란 공감대 속에서 마치 친구나 동료와 같이 서로 찾고 위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또한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해를 거듭해도 더욱 친근한 것은 우리 협의회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탄탄한 구성의 '전시협' 홈페이지(www.ufma.or.kr)를 통해 회원 간의 안부를 전하고 궁금한 업무에 대한 질의와 응답,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 및 제안, 기술정보와 세미나 자료 등을 언제나 열람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이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다.

이제 전국대학교시설관리자협의회는 대학 세계에서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고, 그래서 서로를 잇는 가교요, 그들의 정보 마당이다.

대학들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어떤 경우는 상대 대학을 롤모델로 삼아 정보에 의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대로 따라하여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아직도 재정 사정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대학 시설관리자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기회가 학교당국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어 서로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진정한 대학발전에 기여하기를 소원해 본다.

작금의 대학 현장에 던져진 ‘반값등록금’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화두에 대학재정지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필자소개

이영휘 | 강남대학교 시설관리처 팀장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였다. 2001년 발송배전기술사를 취득하였고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이며 한국기술사회 발송배전분회 수석총무를 맡고 있다. 현재 강남대학교 시설

관리처 팀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협의회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송전, 배전 공학정리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연구』가 있다.